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성장회계로 본 산업의 구조적 변화

■ 2050, 통일 한국의 경제적 미래

1.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2. 성장회계로 본 산업의 구조적 변화
3. 미래산업의 모습과 12개 유망산업
4.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발행인 : 하태형
편집주간 : 한상완
편집위원 : 주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성장회계로 본 산업의 구조적 변화

Executive Summary	i
1. 남북한 산업구조 현황	1
2. 통일 한국의 산업 구조 추정	2
3. 시사점	9
【별첨】	11
【HRI 경제 통계】	14

< 요약 >

■ 남북한 산업구조 현황

2012년 북한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의 중심으로 (명목부가가치 기준, 37.4%) 남한의 1970년대 산업구조와 유사하다.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이 58.9%, 중공업이 27.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서비스 및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노동인구에 비중에서도 북한은 전체 근로자의 41.9%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서로 상이한 산업구조를 가진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어떤 추이를 보일 것인지를 살펴보고, 산업 측면에서 통일 한국이 통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산업구조 추정 방법) 통일 한국의 산업 구조는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산업별 성장경로에 자본스톡과 노동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각 생산요소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생산함수 방식을 통해 추정한다. 이때 산업 부문은 '1차산업', 제조업 중 '경공업'과 '중공업', 'SOC·건설 부문', '서비스업'의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북한 산업구조 추정 결과)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 전망을 토대로 북한의 산업구조를 추정한 결과 향후 중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의 경우 2020년 25.0%에서 2050년 4.3%로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경공업 역시 2020년 6.0%에서 2050년 2.4%로 비중 감소가 전망된다. 반면 중공업은 2020년 11.7%에서 2050년 31.3%로, 서비스업은 2020년 44.9%에서 2050년 53.3%로 비중이 증가하여 북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기대된다. SOC·건설 부문은 2020년 12.4%, 2030년 14.3%로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다가 2050년에는 8.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 산업구조 추정 결과)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을 토대로 남한의 산업구조를 전망해 본 결과 향후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통일 이후에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 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2020년 57.9%에서 2050년 6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면 중공업 비중은 2020년 28.1%에서 2050년 23.8%로 SOC·건설 부문과 경공업의 비중은 2050년에 각각 4.5%, 1.6%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한국 산업구조 추정 결과)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북한의 중공업 발전이 남한의 중공업 비중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체 경제규모가 큰 남한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비중이 2020년 57.8%에서 2050년 68.6%로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된다. 또한 중공업의 비중은 남한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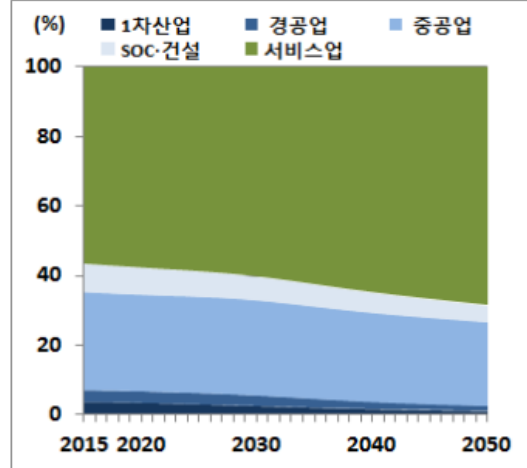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겠으나, 북한 중공업의 성장으로 인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통일 한국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

	2015~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전산업	3.4	4.7	4.0	3.1
1차 산업	1.9	1.4	-0.5	-0.9
제조업	3.1	4.5	3.0	2.3
경공업	2.7	3.8	0.3	-0.2
중공업	3.1	4.6	3.3	2.5
SOC·건설	2.4	3.4	2.3	1.1
서비스업	3.8	5.2	4.7	3.7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 통일 한국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 통일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통일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으로는 첫째,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프트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통일 한국의 제조업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북한지역의 SOC·건설부문은 2030년 초반까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일 초기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북한지역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일 이전 북한의 주요산업이었던 1차 산업과 경공업이 사양산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남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산업 중심의 발전이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이 둔화되던 중공업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사점

통일 한국의 경제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 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통일의 시너지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통일 후 북한 산업구조를 1차 산업 위주에서 중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한 산업 발전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통일시 북한 경제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를 위해 재원조달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통일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통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 한국 경제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유라시아 경제권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한반도를 넘어서는 생산·물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 남북한 산업구조 현황

-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는 남한의 1970년대 산업구조와 유사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1)
 - 2012년 북한의 산업별 명목부가가치 비중은 1차 산업 37.4%, 제조업 비중 21.9%(경공업 6.7%, 중공업 15.2%), SOC·건설 부문 11.3%, 서비스는 29.4%
 - 반면 남한은 2012년 서비스업이 58.2%, 중공업 27.2% 등 서비스 및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 북한의 노동인구는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
 - 북한의 1차 산업 노동인구는 511만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41.9%를 차지하며, 서비스업이 361만명으로 29.6%, 제조업이 288만명으로 23.7%를 차지
 -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1,718만명으로 69.6%를 차지하며 제조업은 410만명으로 16.6%를 차지하나 1차 산업 종사자는 154만명으로 6.3%에 불과

< 남북한 산업별 명목부가가치 비중 현황 > (%)

	북한		남한	
	1990	2012	1970	2012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36.4	37.4	30.7	2.8
제조업	31.8	21.9	18.5	31.1
경공업	6.2	6.7	11.2	3.9
중공업	25.6	15.2	7.4	27.2
SOC·건설	13.7	11.3	6.4	7.9
서비스업	18.0	29.4	44.3	58.2

자료: 한국은행.

주: 북한은 명목GDP 대비 비중, 남한은 명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을 의미.

< 남북한 산업별 취업자수 및 비중 현황 > (단위: 만명, %)

	북한		남한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산업	1,218	100.0	2,468	100.0
1차 산업	511	41.9	154	6.3
제조업	288	23.7	410	16.6
경공업	132	10.9	78	3.1
중공업	156	12.8	333	13.5
SOC·건설	58	1.8	185	7.5
서비스업	361	29.6	1,718	69.6

자료: 통계청.

주: 1) 북한 2008년, 남한 2012년 기준.
2) 북한은 인민경제부문별 노동인구를 산업에 맞게 재조정함.

1) 1차 산업은 농림어업과 광업을 포함하며 SOC·건설 부문은 전기가수도업과 건설업을 의미. 제조업 중 경공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을 의미.

2.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1)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방법 및 가정

- 통일 한국의 산업 구조는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산업별 성장경로를 각각 추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추정
 - 남한과 북한의 산업별 성장경로는 자본스톡과 노동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각 생산요소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생산함수 방식을 통해 추정²⁾
 - 산업 부문은 '1차 산업', 제조업 중 '경공업'과 '중공업', 'SOC·건설', '서비스업'의 총 5개 부문으로 구성
 - 2015년에 통일이 되는 것을 가정한 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의 산업구조 변화를 전망

- 북한의 요소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은 기본적으로 1970년대 이후 남한의 성장 경로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통일로 인한 추가적인 시너지효과를 고려³⁾
 - 통일 후 북한의 요소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국민소득수준이 유사한 남한의 1975년 이후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
 - 북한의 자본스톡은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유입을 통해 노후화된 자본스톡의 빠른 교체와 신규자본 축적이 급격히 진행
 - 노동투입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극적인 향상과 인구의 대규모 노동시장 유입이 발생
 - 또한 각종 제도와 시장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1970년대 남한을 능가하는 총요소생산성을 유지

- 남한의 요소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은 1990년대 이후 통일 독일의 성장 경로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통일로 인한 추가적인 시너지효과를 고려

2) 구체적인 추정 방법 및 가정은 【별첨】 참조.

3)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은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경제주평, 2014.04)을 참조.

- 통일 후 남한의 요소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은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통일의 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통일 독일의 1991년 이후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
- 남한의 총자본스톡은 통일 초기 통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본투자 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후 북한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 증가와 함께 자본투자가 활성화
- 노동투입은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북한으로의 투자확대로 인한 경제 활성화로 외부에서의 노동투입 규모가 증가
- 또한 통일로 인해 각종 제도와 시장의 선진화가 촉진되고 내수시장의 규모의 경제 효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2)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결과4)

○ 북한 산업구조 추정 결과

- 북한의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을 전망한 결과 통일 후 모든 산업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 특히 중공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이 빠름
 - 북한의 GDP증가율은 통일 후 5년 간 10.1%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후 2021~2030년 9.7%, 2031~2040년 7.9%, 2041~2050년 6.2%로 점차 하락
 - 산업별로 보면 중공업은 통일 후 2040년까지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2040년 이후 8.5%로 성장률이 감소
 - 서비스업의 경우 통일 후 5년 간 약 15%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이후 11.0%, 8.6%, 6.1%로 성장률이 점차 하락
 - SOC· 건설 부문은 통일 초중반기 북한으로의 집중 투자로 인해 2030년까지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2030년 이후 5.9%, 3.1%로 급락
 - 1차 산업은 통일 후 5년간 2.6%, 2021~2030년 -1.3%, 2031~2040년 3.9%, 2041~2050년 2.7%로 북한의 전체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

4)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경제주평, 2014.04)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 1(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을 기준으로 추정. 시나리오 2(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의 산업별 비중 결과치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시나리오 1 기준과 큰 차이가 없음.

-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을 토대로 북한의 산업구조를 전망해 본 결과 향후 중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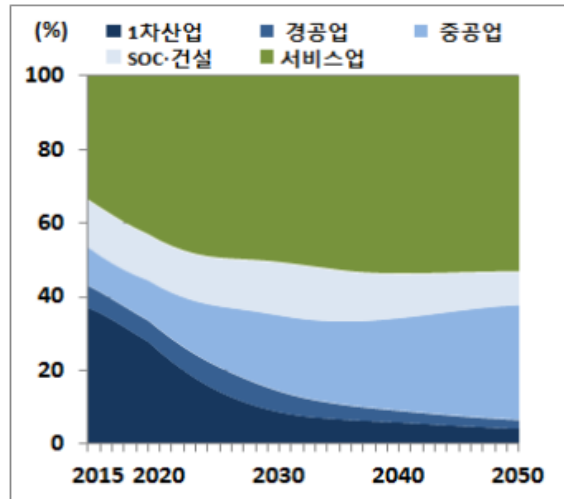
-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의 경우 2020년 25.0%, 2030년 8.7%, 2040년 6.0%, 2050년 4.3%로 비중이 급격히 감소
- 경공업 역시 2020년 6.0%로 현재 수준이 유지되다 2030년 5.6%, 2040년 3.2%, 2050년 2.4%로 비중이 급격히 감소
- 중공업은 2020년 11.7%에서 2050년 31.3%로, 서비스업은 2020년 44.9%에서 2050년 53.3%로 비중이 증가하여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
- SOC·건설 부문은 2020년 12.4%, 2030년 14.3%로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다가 2050년에는 8.9%로 낮아질 전망

< 북한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

	(%)			
	2015~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2041~2050년
전산업	10.1	9.7	7.9	6.2
1차 산업	2.6	-1.3	3.9	2.7
제조업	12.9	14.1	8.7	8.0
경공업	10.9	9.0	1.9	3.1
중공업	13.9	16.1	10.1	8.5
SOC·건설	9.0	11.3	5.9	3.1
서비스업	15.2	11.0	8.6	6.1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 북한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 남한 산업구조 추정 결과

- 남한의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은 통일 효과로 2020년까지 1차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이 상승하였다가 2050년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남한의 GDP 증가율은 통일 후 5년 간 3.0%에서 2021~2030년 4.5%로 증가했

다가 2031~2040년 3.7%, 2041~2050년 2.8%로 추세적으로 하락

- 산업별로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1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2030년까지 상승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
- 중공업은 통일 직후부터 2020년까지 2.9%에서 2021~2030년에는 4.3%까지 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2041~2050년 2.0%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
- 서비스업은 2030년 이후 부가가치 증가율이 하락하나 하락폭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낮아 통일 후 2050년까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을 토대로 남한의 산업구조를 전망해 본 결과 향후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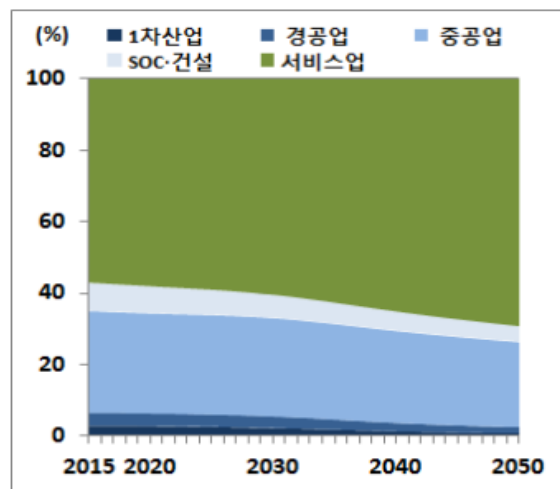
-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에 따라 전체 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2020년 57.9%, 2030년 60.3%, 2040년 65.0%, 2050년 69.1%로 지속적으로 증가
- 중공업 비중은 2020년 28.1%에서 2050년 23.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1차 산업과 경공업의 비중은 2050년에 각각 0.9%, 1.6% 수준으로 하락하며, SOC·건설 부문 역시 4.5%로 하락할 전망

< 남한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

	2015~2020년			
	2015~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2041~2050년
전산업	3.0	4.5	3.7	2.8
1차 산업	2.7	2.2	-1.1	-1.6
제조업	2.9	4.3	2.8	1.8
경공업	2.4	3.7	0.3	-0.5
중공업	2.9	4.3	3.0	2.0
SOC·건설	2.3	3.0	1.9	0.9
서비스업	3.6	4.9	4.5	3.5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 남한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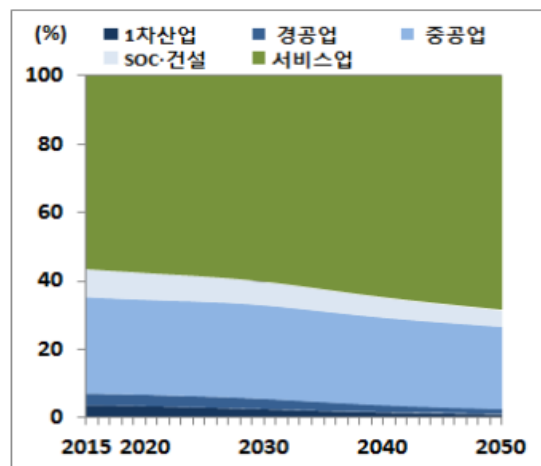
- 통일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은 중공업과 서비스업이 높을 것으로 전망
 - 통일 한국의 전체 GDP 증가율은 3.4%, 4.7%, 4.0%, 3.1%로 2030년까지 상승세로 나타나다가,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일 전망
 - 산업별로는 북한의 중공업 및 서비스업의 빠른 성장세가 2030년 이후 남한의 중공업 및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하락을 상쇄
 - 따라서 통일 한국의 중공업 및 서비스업의 전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3.4%, 4.4%를 기록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
-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동시에 북한의 중공업 발전으로 남한의 중공업 비중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
 -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체 경제규모가 큰 남한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통일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2020년 57.8%, 2030년 60.3%, 2040년 64.9%, 2050년 68.6%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또한 통일 한국의 중공업 비중은 남한과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겠지만, 북한 중공업의 성장으로 인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

<통일 한국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2015~ 2020년	2021~ 2030년	2031~ 2040년	2041~ 2050년
전산업	3.4	4.7	4.0	3.1
1차 산업	1.9	1.4	-0.5	-0.9
제조업	3.1	4.5	3.0	2.3
경공업	2.7	3.8	0.3	-0.2
중공업	3.1	4.6	3.3	2.5
SOC·건설	2.4	3.4	2.3	1.1
서비스업	3.8	5.2	4.7	3.7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 통일 한국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3) 통일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소프트화

- 통일 한국의 산업은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프트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

- 통일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통일 직후인 2015년 56.7%에서 2050년 68.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는 남북한 통일 후 내수시장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1인당 소득 수준 향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고도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

○ 통일 한국의 제조업 성장 견인력 지속

- 통일 한국의 제조업은 중공업 중심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통일 한국의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중은 통일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 각각 1.6%, 24.0%가 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지만 중공업의 경우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통일 초기 SOC·건설부문은 북한지역 경제성장의 동력

- 북한지역의 SOC·건설부문은 2030년 초반까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일 초기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

- 북한지역의 산업구조에서 SOC·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일 직후 13.0%

시작으로 2031년 14.4%(추정 기간중 최대 비중)로 증가

- 이는 통일 초기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대규모 SOC·건설투자의 결과로, SOC·건설투자 및 비중 증가는 통일 초기 북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중공업과 서비스업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

○ 북한경제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

-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1차 산업과 경공업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

- 북한지역의 산업구조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일 직후 9.9%에서 2050년 31.3%로 증가
- 이는 남한으로부터의 SOC·건설투자 및 기술이전과 북한지역의 풍부한 지하 자원이 결합되면서 중공업 부문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대륙의 수출시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
- 반면 1차 산업과 경공업 비중의 경우 2050년까지 각각 4.3%, 2.4%로 감소하면서 통일 전 북한 경제의 주요산업에서 사양산업으로 이동

○ 남한경제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북한 제조업 성장과 연계된 중공업 발전

- 남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발전하며 성장이 둔화되던 중공업이 통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

- 남한 경제는 북한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물류, 교육, 의료, 기술개발분야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북한지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기계설비, 부품소재 등의 생산이 남한 지역 중공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통일 한국은 남한의 서비스업 및 중공업과 북한의 중공업이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

3. 시사점

첫째, 통일 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본 보고서는 매우 제한적인 가정 하에서 남한과 북한의 산업별 생산요소에 대한 전망을 통해 통일 이후 산업구조를 추정하였음
- 따라서 통합 방식에 따른 통일 효과에 대한 세밀한 예측을 통해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통일 후 북한 산업구조를 1차 산업 위주에서 중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한 산업 발전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 통일 후 북한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1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벗어나 중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남한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산업 발전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임

셋째, 통일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 본 보고서에서는 통일 이후 자본투자의 제약이 없음을 가정하였으나 실제 자금 차입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본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지역에 대한 자본 투자 증가가 남한 지역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금 확보 계획이 요구됨

- 또한 정부 주도의 자본 투자는 조세 및 정부부채 등 재정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민간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넷째, 통일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통일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적인 통일 정책이 요구된다.

-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주민의 급격한 남한 이주나 북한의 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시장 불안과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구 및 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면밀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통일 한국 경제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유라시아 경제권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한반도를 넘어서는 생산·물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통일 직후 일시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하고 통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역내 교역의 활성화임
- 특히 북한과 육상교통으로 연결 가능한 극동러시아, 중국, 몽골 등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교역을 통해 시장과 생산기지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 극대화의 핵심이라고 판단됨
- 이에 따라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권 전역에 대한 생산·물류·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일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별첨 1】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방법

○ 남한과 북한의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전망 방법

- 통일 한국의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전망치 추정을 위해 개별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성장회계를 이용함

· 산업별 성장회계는 $Y_{i,t} = A_{i,t} K_{i,t}^{(1-\alpha_j)} L_{i,t}^{\alpha_j}$ 와 같은 1차 동차 콥-더글라스 형태의 산업별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이를 로그 차분하여 다음과 같이 각 변수의 성장률로 나타나는 산업별 성장회계식을 도출

$$* \quad d\ln Y_{i,t} = d\ln A_{i,t} + (1-\alpha_j) d\ln K_{i,t} + \alpha_j d\ln L_{i,t}$$

· $Y_{i,t}$ 는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K_{i,t}$ 는 산업별 자본스톡, $L_{i,t}$ 는 산업별 노동투입, $A_{i,t}$ 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α_j 은 기간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의미

· 남한과 북한의 각각 생산요소 A, K, L의 성장률 전망치를 추정하고 이를 성장회계식에 대입하여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전망치를 산출

【별첨 2】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전망

○ 남·북한 및 통일 한국의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 북한의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

	(%)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35.6	25.0	8.7	6.0	4.3
제조업	15.6	17.7	26.3	28.4	33.7
경공업	5.8	6.0	5.6	3.2	2.4
중공업	9.9	11.7	20.7	25.2	31.3
SOC·건설	13.0	12.4	14.3	11.9	8.9
서비스업	35.8	44.9	50.7	53.8	53.3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 남한의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

(%)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3.0	2.9	2.4	1.5	0.9
제조업	32.1	31.5	30.2	28.1	25.4
경공업	3.6	3.4	3.2	2.3	1.6
중공업	28.5	28.1	27.6	25.8	23.8
SOC·건설	8.0	7.6	6.6	5.5	4.5
서비스업	56.9	57.9	60.3	65.0	69.1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 통일 한국의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

(%)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3.7	3.4	2.5	1.6	1.1
제조업	31.6	32.1	30.4	27.8	25.6
경공업	3.6	3.5	3.2	2.2	1.6
중공업	28.0	27.6	27.2	25.6	24.0
SOC·건설	8.0	7.6	6.7	5.7	4.7
서비스업	56.7	57.8	60.3	64.9	68.6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조규림 선임연구위원(2072-6240, jogyurim@hri.co.kr)

오준범 연구원(2072-6247, jbdevil@hri.co.kr)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연간(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3	2.1	2.7	3.4	3.7	3.0	3.8
	민간소비(%)	2.9	1.9	1.7	2.1	2.1	2.2	2.0	2.7
	건설투자(%)	-3.4	-3.9	1.9	9.8	8.8	5.4	6.7	2.5
	설비투자(%)	4.7	0.1	-12.7	-3.9	1.5	10.9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261	481	100	198	190	220	707	490
	무역수지(억 \$)	308	283	56	144	108	133	441	370
	통관기준 수출(억 \$)	5,552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6,067
		증감률(%)	(19.0)	(-1.3)	(0.4)	(0.7)	(2.7)	(4.7)	(2.1)
	수입(억 \$)	5,244	5,196	1,297	1,267	1,260	1,331	5,156	5,697
증감률(%)		(23.3)	(-0.9)	(-3.0)	(-2.8)	(0.3)	(2.5)	(-0.8)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6	1.2	1.4	1.1	1.3	2.4	
실업률(%)	3.4	3.2	3.6	3.1	3.0	2.8	3.1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7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